



천경자 작 '초원 II'

천경자 작 '초원 II' 11억~15억 경매 최고가 경신 예상

고흥 출신 원로화가 천경자(83) 씨의 그림 1점이 15일 열리는 K옥션의 5월 경매에 추정가 11억~15억원에 나온다.

4일 K옥션에 따르면 천 씨의 이번 작품은 코끼리와 사자, 얼룩말이 있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나체 여인이 코끼리 등에 업혀서 '초원 II'(1978년작)로 105.5×130cm 크기다.

이번 작품이 낙찰되면 지난해 12월 K옥션 경매에서 '모자를 쓴 여인'이 기록한 6억3천만원의 천경자 작품 경매 최고가가 경신된다.

박수근의 '여인과 소녀들'은 11억~16억원, '나무가 있는 마을'은 7억5천만~8억5천만원에 경매되고 김환기의 '산'(5억~6억5천만원), 'Forever'(2억9천만~3억6천만원)도 높은 가격에 출품된다.

고미술품으로는 김홍도의 완수기 작품 '유영도'(2억~3억원), '청자상감국화문표형주자'(2억5천만~3억5천만원) 등이 소개된다.

K옥션 측은 "그랜드 하얏트 호텔 리전시 룸에서 열리는 이번 경매에는 총 228점이 출품되며 3월 경매에 이어 낙찰총액이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프리뷰는 10~15일 서울 종로구 시간동 K옥션 경매장. 문의 02-2287-3600. /연합뉴스

기아차 1분기 737억 적자

매출 12% 급락... 4분기 연속 영업손실

쏘렌토 생산차질·판촉비 증가 원인

지난해 환율하락과 노조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기아자동차가 올해 1~4분기에 73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 4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3조8천50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2%나 급락했고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바뀌면서 601억원, 306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전분기보다는 매출액이 24.4%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187억원, 당기순손실은 304억원 늘었다.

이같은 기아자동차의 지속적인 영업적자는 기아자동차가 삼성광주전자와 함께 광주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업

체를 비롯한 광주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기아차는 4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업설명회(IR)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1분기에 쏘렌토 생산라인 재조정 공사로 인해 2만2천여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데다 해외 판매법인에 대한 판촉지출 확대, 국내 경쟁격화에 따른 판촉비 증가 등이 실적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차 판매는 내수가 6만7천128대로 8.1% 늘었으나 수출이 20만4천12대(해외생산분 제외)로 11.6%가 줄었다. 그러나 기아차는 2분기 이후 ▲가동률 향상 ▲신차종 투입 및 판매 경쟁력 강화 ▲무수고 고정자산 매각

▲유럽공장 조기 정상화 등 모든 경영활동에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2분기에는 흑자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조남홍 사장은 "1분기는 영업적자를 피할 수 없었다"며, "이제 라인 조정이 마무리돼 가동률이 높아지고 신차 출시, 전사적인 원가절감 노력이 더해지면 2분기 이후에는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유동성 문제와 관련, "중장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공장 건설 등 투자증가로 유동성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없다"며, "해외공장 건설이 완료되는 2009년부터 나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경선룰' 당지도부 일임

이명박-박근혜 합의

한나라당 양대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4일 당내 경선시기 및 방식과 관련된 논의와 결정을 당 지도부에 일임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열창동 당사에서 강재섭 대표, 김형오 원내대표와 '4차 회동'을 갖고 4·25 재·보궐 선거 참패에 따른 당 쇄신방안과 관련, 이같이 합의했다고 백석한 유기준 대변인이 전했다.

두 대선주자는 또 당내 인사와 관련된 부패와 비리를 엄격히 처리하는 한편 캠프내 상주 의원 최소화, 대선주자간 검증, 경선 결과 무조건 승복 등에 대해서도 당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회동은 강 대표가 당 쇄신방안과 관련한 9가지 제안을 포괄적으로 내놓고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이 의견을 내놓는 식으로 이뤄졌다. 강 대표는 ▲경선 결과 무조건 승복 ▲주제별 정책토론회 개최 ▲불법 선거운동 중단 ▲대선주자 간담회 등도 제안했고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은 이 역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4일 오후 열창동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강재섭 대표의 초청으로 만나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시설

청정해역 '여자만' 황폐화 대책 서둘러라

남해안의 여수반도와 고흥반도 사이에 자리한 청정해역 여자만(漣)의 생태계가 황폐화돼 가고 있다고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올 3월까지 여자만에 대한 자원변화 상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3월 여자만에 출현한 어종은 46종으로 2년 전에 비해 무려 31% 감소했다. 특히 어민 소득과 직결되는 고급 어종의 분포는 매우 낮은 상태며 영양단계가 낮은 새우류 등의 갑각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만은 국내에 몇 안 되는 청정 연근해역이다. 청정해역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보물창고다. 생산과 생명, 생활의 공간으로 우리에게 값진 자원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데도 남해안의 대표적인 청정해역인 여자만의 생태계가 황폐화되도록 방치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어수가 2012 세계엑스포 유치를 신청하면서 내세운 가장 큰 이유가 청정해역이 아니었다.

여자만 생태계를 파괴 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해적생물인 불가사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가사리가 2005년 어획물의 40~60%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60~70%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폐통발과 일반 생활쓰레기 등이 급증한 것도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청정 해역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연안 어족 자원 증식을 위해 수백억원 투자하는 것보다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가 더욱 크다. 당국은 여자만 생태계 변화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해 구체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과 어민들이 청정해역의 보전은 우리 세대의 의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어린이 '권리' 되새기는 어린이 날 되길

5일은 제 85회 어린이 날이다. 광주·전남 곳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와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미래의 주인공들이 티없이 맑고 밝게 뛰노는 '어린이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

아동학대와 어린이 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는 5천202건으로 전년 대비 12.3% 늘어났다. 아동학대의 80.9%가 집에서 일어났고 가해자 중 부모의 비율이 83.2%에 달했다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이나 유괴, 살인 등의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헌장에는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갈망한다고 규정돼 있다. 어린이들은 누구나 학대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복을 누리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부모의 소유물이나 화물이 대상일 수는 없다. 어린이 날을 맞아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아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일회성 나들이나 용돈, 선물 등이 아닐 것이다.

어린이들은 대부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오히려 부모들의 과잉보호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어른들의 지나친 욕심으로 어린이들이 새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경쟁사회의 틈바구니에서 과의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도 어린이들이 학대와 유괴, 성추행 등의 범죄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이 희망을 가질 때 우리 사회에도 희망이 있다.

비자금 100억 조성, 의원 보좌관 등 개입

檢 고양 탄현 로비의혹 수사

경기도 고양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정·관·금융계 로비의혹사건의 핵심인물인 시행사 K사 대표 정모(47)씨가 검거된 뒤 로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K사는 100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 로비자금과 토지매입 웃돈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을 확인했다"며 "비자금의 쓰임새에 대해 집중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탄현 주상복합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4일 "K사의 대표 정씨 지인들의 계좌 여러개로 K사가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마련한 사실

비자금은 현직 국회의원 A씨의 보좌관 B모(39)씨와 B씨의 친구 C모(39)씨에게 건네진 2억원 등 로비자금 외에 ▲K사 대표 정씨의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 ▲부지 매입 당시 웃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조례개정 대가로 K사측으로부터 1억원을 챙긴 고양시의회 현의원 최모(42)씨와 2천만원을 받은 전의원 심모(39)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지병문·이영호·주승용 의원

서남권 특별법 발의 거부

지병문(광주 남), 이영호(강진·완도), 주승용 의원(여수) 등이 전남 발전을 견인할 서남권 특별법(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안)의 발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남해안 특별법이 서남권 특별법과 비슷한 성격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으며 지병문 의원은 서남권 특별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에서 발의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서남권 특별법은 지난해 3월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등 여·야 의원 52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영호 의원 측은 "법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동 발의에 서명할 기회를 놓쳤다"며 "서남권 특별법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대부분의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서남권 특별법의 공동 발의에 나선 반면, 지병문, 주승용, 이영호 의원 등은 발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김승연 회장 총기 11정 가지고 있다”

국회 행자위 '보복폭행' 늑장수사 질타 남대문경찰서 사건 배당도 집중 추궁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택순 경찰청장으로부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과 보고를 받고 경찰청의 늑장·부실수사 및 정보 유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또 이택순 경찰청장과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이 한화그룹의 로비를 받아 초기 수사를 축소·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김 회장이 각종 총기를 11정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과 한화건설 고문으로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경복사대부고 선우배 사위로 최 전 청장 취임 당시 장 서장은 국회의원사청문회 대책팀장이었다”면서 “사건이 청계산·청담동 등에서 발생했으면 남대문경찰서에 배당되는 것이 정상인데 남대문경찰서에 배정된 것은 틀림없이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배 의원이 “이 청장과 유모

한화그룹 고문은 용산고 21회 동기동창이며 골프도 함께 즐기는 관계”라면서 “특히 유모 고문은 이택순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지난해 1월 4일 한화증권 고문으로 영입됐고 이 청장이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 발행 후에도 유모 고문과 전화연락을 했고 함께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이날 행자위 회의 전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사격경기용 권총 2정, 영총 8정, 공기총 1정 등 총 11정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중 10정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1정은 국내 총포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했

며 이중 사격경기용 권총 2정과 영총 1정은 태릉종합사격장에, 영총 7정과 공기총 1정은 종로경찰서에 각각 영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또 “김 회장이 소지허가가 까다로운 사격용 권총 소지허가를 얻기 위해 서울특별시사격연맹으로부터 사격선수 추천을 받았다”면서 “경찰청이 특정인에게 11정의 총기 소지허가를 내주고 사격연맹은 김승연 회장을 사격선수로 등록시켜 2정의 사격용 속사 권총 소지허가를 받도록 추천까지 발급한 것은 제대로 된 총기관리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사건 발생 2~3일 후 최기문 한화건설 고문이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 수사 진행 여부를 물었고 남대문서장은 외압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발표했다”며 “이는 표면상 고교 선우배 관계를 이용한 로비이고 본질은 경찰의 전관예우”라고 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F-1 특별법 대폭 수정해야”

김종민 문광부장관 후보자 법 제정까지 진통 불가피

F-1 특별법(포퓰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폭 수정하거나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법 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 선도시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F1대회의 원만한 개최를 위해서는 F1의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강조하는 논리 개발과 설득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김종민 문화관광부장관 후보자는 4일 열린 국회 문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F-1 특별법 제정은 특정 기업

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후 입법 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기획예산처가 발주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F-1 대회 사전타당성 조사 재검증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F-1 대회 수익성 분석을 낙관적으로 해도 NPV(순현재가치)가 -2천381억원에 달한다”며 “최고 관중을 동원할바 있는 호주 F-1 대회에서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국내 F-1 대회에서도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본보가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 24명에게 F-1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결과, 응답 의원 19명 가운데 17명이 대폭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재벌과 경찰

어른들은 나라의 골치